

※ 진흥회 소식 ※

「전기 전문 기술인력 조사」 사업 추진

전기분야에 종사하는 전문 기술인력을 조사하여 Data Base화 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되어 전기산업계의 인력수급과 전문인력 활용이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기공업진흥회와 한국전기연구소는 통상산업부에서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국가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업정보 전산망 사업에 따라 「전기분야 전문 기술인력 정보 DB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전력공사 지원하에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한전정보네트웍(주)가 사업시행 기관으로 한국전기연구소가 개발을 담당하고 한국전기공업진흥회가 위탁기관으로 조사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추진되는 사업은 프로그램 개발과 전기분야에 종사하는 국내 모든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조사하여 DB화 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산업체 600명, 연구소 200명, 전력회사 100명, 대학교수 100명 등 약 1,000명을 조사하게 되며 향후 우리나라 전기분야(중전기, 전력 등)에 종사하는 전체 기술인력(전문기술자, 현장기술자, 기술기획전문가 등)을 모두 조사하여 DB화 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사업과 관련 한국전기공업진흥회에서는 금년 1차적으로 전기산업 관련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 및 현장기술자 약 600명을 조사하게 된다. 9월 중순 조사표를 발송하여 금년말까지 추진하게 되는 이번 조사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본인의 기술 및 경력 사항 등을 홍보코자 하는 기술직 종사들은 진흥회 조사과로 문의하면 사업의 자세한 추진 배경과 조사표를 받아 볼 수 있다.

이번 조사된 정보는 정부 및 산·학·연에서의 기술자문 및 연구평가위원 선정등과 기술개발 과제 수행시 참여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하게 되며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공개 활용 가능한 정보만을 인터넷 등 정보네트웍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본인의 업적과 기술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한편, 최근 제조업의 기술집약화 추세에 따라 고급 연구·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산업계의 기능인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전문기술인력정보 DB화」 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공급과 활용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